

젠슨 황, 이번엔 '삼겹살 회동'... HBM 넘어 피지컬 AI 협력

5일 성수동서 韓 총수 회동
SK·LG·네이버와 협력 논의
HBM4 공급 로드맵 점검 전망
LG·현대차 로보틱스 협력 부상
네이버 소버린·국방 AI 의제



지난 202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부터)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간부치킨 매장에서 치맥 회동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서울 성수동의 한 삼겹살집에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잇따라 회동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넘어 로보틱스 기반 '피지컬 AI'로 협력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잇따라 회동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일정으로 이번 만남에는 함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장소로는 성수동 삼겹살집이 거론된다. 평소 캐주얼한 만남을 즐기는 황

CEO의 성향에 더해 장소가 젊은 층이 몰리는 핫플레이스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10월 삼성동 차킨집에서 열린 '간부 회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협력의 한 축은 메모리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플랫폼 '베라 루빈'에 6세대 HBM인 HBM4가 탑재되는 만큼, 황 CEO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과 공급 로드맵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올해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

회(CES)에서 HBM4를 두고 "당분간 엔비디아가 유일한 소비자"라며 강한 수요를 예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는 HBM 공급에 더해 파운드리 협력도 의제로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HBM4E 12단 샘플까지 세계 최초로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며 일정을 앞당겼다. 메모리·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윈스턴 솔루션을 앞세워 TSMC에 편중된 엔비디아

공급망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는 고객 요청에 따라 HBM4를 양산하며, 엔비디아 차세대 GPU 탑재를 위한 최종 품질 검증에 대응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하반기 AI 칩 '루빈' 출시를 앞두고 SK하이닉스 물량 확보에 적극적인 만큼 업계는 SK하이닉스가 올해 엔비디아 HBM4 공급량의 약 60~7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TSMC와 손잡고 HBM4 베이스 다이에 로직 공정을 도입해 엔비디아 GPU와의 최적화에 주력하고 있다.

협력의 새 축은 피지컬 AI다. LG그룹과는 로보틱스 기반 협력이 핵심으로, 이번 구광모 회장과 황 CEO의 첫 공식 회동이다. LG전자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로봇 '블로이'를 자율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 'AI 홈 파트너'로 진화시킨다는 구상이다. 협력은 LG전자를 넘어 그룹 전반으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LG AI연구원의 AI 모델, LG이노텍의 반도체 기반·로봇 센서, LG CNS의 로보틱스 플랫폼 등 주요 계열사가 피지컬 AI 밸류체인 전반에 포

진된 만큼 그룹 차원의 협력 청사진이 제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월부터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왔다. 자회사 보스톤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이틀라스'에 엔비디아 GPU를 탑재하고, 시뮬레이션 도구 '움니버스'를 활용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를 포함한 협력 확대가 다뤄질 전망이다. 네이버와는 소버린 AI와 피지컬 AI 플랫폼 협력이 주요 안건이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APEC 당시 한국에 배정된 GPU 26만 장 중 가장 많은 6만 장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배정했고, 최근 네이버 클라우드가 국방 AI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면서 국방 AI도 협력 의제로 떠올랐다.

한편, 황 CEO는 방한 기간 중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경기 시 구자로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호텔에서 국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K-방산, 지상무기 수출 질주... AI 무인체계 사업화는 과제

주요 방산사 해외 매출 8.8조
K2·K9·천무가 수출 성장 견인
AI·드론·로봇으로 영역 확대
미래형 무기 대형 수주는 아직
전력화·사업화 절차 개선 필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내 방산업계가 AI 무인체계와 드론·로봇 등 미래형 무기체계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다만 해외 수출 성과는 아직 기동·지상무기에 집중돼 있어 신기술 개발을 대형 수출로 연결하는 사업화 속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의 해외 사업은 최근 수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해외 매출액

합계는 8조78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해외 매출액보다 611% 증가한 규모다.

수출 확대를 이끈 주력 품목은 지상전력과 방공체계에 몰려 있다. 폴란드 대형 계약을 계기로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가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고, 중

동에서는 천궁-II를 중심으로 방공체계 수요가 늘었다. 반면 AI 기반 전장 통합체계와 대형 무인 플랫폼 등 미래형 무기체계에서는 아직 지상무기만큼의 대형 해외 수주 사례가 많지 않다.

국내 기업들은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AI·무인체계 분야로 기술 개발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대로템은 피지컬 AI 기반 무인로봇과 무인 지상 전투차량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KAI 등도 드론·로봇·AI 전투체계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관련 사업이 아직 연구 개발과 실증 단계에 머무는 사례가 많아 해외 매출을 이끈 지상무기처럼 대형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AI와 무인체

계가 이미 대형 조달 사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미국 육군은 올해 안드릴과 AI 기반 전장 통합 소프트웨어, 무인체계, 데이터 인프라 등을 아우르는 10년 규모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한도는 최대 200억달러(약 30조원)에 달한다. 미국 해병대도 안드릴과 최대 6억4200만달러(약 9659억원) 규모의 AI 기반 대드론(C-UAS) 체계 공급 계약을 맺었다. AI 소프트웨어와 무인체계가 독립적인 방산 조달 품목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업계에서는 국내 AI 무인체계가 대형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군 전력화 결정과 사업화 절차도 함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기술 무기체계는 개발 역량만으로 수출이 이뤄지기 어렵고 군 내

부에서 필요한 전력으로 인정돼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야 해외 시장에서도 실적을 만들 수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방산기업들은 AI 무인체계나 로봇 분야에서도 수요가 정해지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문제는 신기술을 실제 전력 소모로 확정하고 사업화하는 절차가 아직 충분히 유연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시범획득 제도 등이 마련돼 있지만 시범 사업이 곧바로 대형 전력화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합참과 방위사업청, 국방부, 각군이 함께 참여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美 태양광 공급망 규제 예고... OCI·한화 비중국 생산망 주목

232조 조사, 6월 말 전 발표 전망
폴리실리콘·파생제품 규제 가능성
OCI, 베트남 웨이퍼 거점 보유
한화솔루션, 美 통합 생산망 구축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위치한 한화규셀 공장 전경. /한화솔루션

미국이 태양광 공급망 규제 확대에 나서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공급망을 겨냥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비중국 생산거점과 미국 현지 생산체계를 확보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리는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상무부가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6월 말 이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32조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수입품에 관세·쿼터·수입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AD·CVD와 달리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며, 업계에서는 폴리실리콘·웨이퍼·셀·모듈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OCI홀딩스는 비중국 폴리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인터텍 CEA는 수입 폴리실리콘 kg당 10달러, 잉곳·웨이퍼 W당 7센트, 셀 W당 10센트, 모듈 W당 20센트의 관세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나증권

은 이 경우 중국 다코(Daqq)의 현금원가가 kg당 4.6달러에서 14.6달러 수준으로 높아지는 반면 OCI홀딩스 생산원가는 약 12달러로 추정돼 상대적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격 경쟁력 외에 공급망 측면의 수혜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내 태양광 제조 투자가 셀·모듈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지만, 중간재인 웨이퍼 생산능력은 상대

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태양광산업협회(SEIA)에 따르면 미국 웨이퍼 생산능력은 지난 2월 기준 5GW이며, 한화규셀 카터스빌 공장(3.3GW)을 포함해도 오는 2027년 8.3GW에 그친다. 반면 셀 생산능력은 19.8GW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약 11.5GW 규모의 웨이퍼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OCI홀딩스는 베트남 웨이퍼 생산거점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내 웨이퍼 공급 부족을 보완할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회사는 조지아주 카터스빌에서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모듈 통합 생산단지를 조성 중이며, 오는 3분기 셀 양산이 시작되면 미국 내 풀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된다.

하나증권은 관세 부과 시 중국계 결정질 실리콘 모듈 가격이 최대 130%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모듈 가격은 현재 W당 약 30센트지만 폴리실리콘·웨이

퍼 관세만으로 9센트, 셀·모듈 관세까지 더하면 총 39센트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최종 수혜 범위는 확정되지 않는다. 업계는 이번 조사가 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철강 232조가 국가별 예외와 쿼터 방식으로 운영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차등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제품은 이미 무역법 301조, AD·CVD,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등으로 상당 부분 규제받고 있어 232조 시행 시 비중국 공급망 선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상호관세와 IRA 개편, OBBB 등 정책 불확실성이 232조 발표를 계기로 상당 부분 해소되면 고객사들의 조달·투자 결정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hedhale@

